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전환

정책자금 운용계획 브리핑... 혁신성장 자금 대폭 확대·4차 산업혁명 분야 3300억 신규 투자

앞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소기업 위주로 공급이 이뤄진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시중은행 자금 조달은 어렵지만 기술·사업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낮은 금리·장기 자금 융자해주는 중소기업부의 대표적인 사업 중 하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여의도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2018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 브리핑을 갖고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기존 수출·성과 중심에서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올해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기부 전체 예산 8조원 규모 가운데 3조7350억원이다. 금리는 2.0~3.3% 수준이며 대출기간은 5~10년이다.

구체적으로 중기부는 중소기업 정책

자금 심사·평가체계를 일자리 중심으로 재구성할 계획이다. 먼저 고용창출 기업,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 성과공유 기업(성과계약 체결, 근로환경 개선 등 사업주와 근로자 간 성과공유를 추진하는 기업)에 대한 평가가 우선적으로 이뤄지도록 '정책우선도 제도'를 개편한다.

'정책우선도 평가제도'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에 정책자금 평가신청이 과다 접수될 경우, 심사대상 우선순위를 평가하는 제도다.

중기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는 정책우선도가 수출기업, 성과공유기업, 고용창출 기업, 시설투자기업 순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고용창출 기업, 일자리안정자금 수급 기업, 성과공유기업, 수출기업, 성과공유 기업 순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일자리안정자금 수급 기업은 올해 새롭게 도입된 기준이다.

아울러 중기부는 정책자금 평가배점에서 일자리 부문 평가배점을 현행 10점에서 20점으로 대폭 상향한다. 기존 10점의 평가배점을 받던 '고용' 부문(정책목적성)을 20점으로 늘린다는 것이다. 또 평가시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에 대해선 별도 가점 3점을 부여해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수출기업 평가배점(10점)은 계속 유지할 계획이다. 중기부 측은 수출기업이면서 고용창출 기업에 해당하는 곳이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중기부는 혁신성장 자금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뉴시스

중기부에 따르면 2018년 창업기업지원자금 예산은 1조8860억원이다. 이는 전체 중소기업 정책자금 예산(3조7350억원)의 약 50%를 차지하는 금액이다. 올해 창업기업지원자금 예산 1조8860억원에서 2100억원 늘어난 금액으로 정책자금 세부자금 중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중기부 측은 설명했다.

창업기업지원자금은 기술·사업성이 우수한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업력 7년 미만)의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자금으로 금리 2.0% 수준에 대출기간은 5~10년, 대출한도는 45억원이다.

아울러 중기부는 주요 창업기업지원사업인 TIPS사업,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청년창업사관학교 등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연계지원 자금 1000억원도 별도 운용할 계획이다. /뉴시스

예보, 저축은행 주요 재무현황 오픈앱 서비스 개시

예금보험공사는 저축은행 주요 재무현황을 애플리케이션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정보제공 서비스(오픈앱)를 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오픈앱(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이란 데이터정보에 대한 접근 방식을 공개해 외부 이용자가 데이터를 활용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제작 등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이용자는 기존 공사 홈페이지를 통

해 공개된 정보 외에 홈페이지 정보와 실시간 자동 연계되는 응용프로그램 등 다양한 콘텐츠를 직접 개발할 수 있다.

예보 관계자는 "오픈앱 서비스는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며 "공사가 분기별로 제공하고 있는 저축은행의 주요 재무현황 정보를 국민들이 쉽게 파악하고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뉴시스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확대

내년부터 10인미만사업장 저소득근로자 국민연금 신규가입 지원

내년부터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의 대상과 지원액이 확대된다.

다만 '신규 가입자 확대'라는 제도의 취지를 살려 최대 '지원기간(3년)'을 도입하고 가입이력이 1년 이상인 경우 지원액을 일부 감액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

보건복지부는 '소규모사업장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소득기준 인상(월 140만원 미만~190만원 미만) ▲연금보험 지원을 확대(신규가입자 기준 60~80~90%)를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내년 최대 지원기간은 36개월(3년)을 넘을 수 없다.

반면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이 '신규 가입자 확대'라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인 만큼 일부 개선사항을 반영했다.

우선 기존 가입자(최근 1년간 가입이력이 있는 사람)의 지원율은 40%로 유지했다.

또 현재 신규 가입자 중에서도 가입기간이 '최근 1년'을 넘긴 사람은 '기존 가입자'로 재분류해 지원수준을 현 60%에서 40%로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약 14만7000명의 연금보험료 지원액이 내년부터 1인 평균 1만 6000원씩 감액된다.

복지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근로자 임금수준 상승 등을 고려할 경우 이번 지원기준 개편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액 자체의 감소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라고 설명했다.

30인 미만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경우 2018년 1월 1일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통해 근로자 1인당 최대 13만원의 추가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이루어지는 두루누리 지원사업 확대가 최저해 범위와 금액을 대폭 확대했다.

지원 수준은 직원의 연금보험료 절반을 부담해야 하는 영세 사업장을 위해 해 범위와 금액을 대폭 확대했다.

신규 가입자의 지원수준을 60%에서 80~90%로 상향했다.사업장 규모별 '1~4인' 90%, '5~9인' 80%를 차등 지원한다.

특히 신규 가입자는 생애 최초 가입자뿐 아니라 1년내 가입이력 없는 사람(기존 3년 이내)을 포함해 문턱을 낮췄다.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이직이 잦아, 정규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별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개선사항이다.

또 기존에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을 받은 적이 있더라도 재취업하는 경우 등 최근 1년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이력이 있으면 또다시 지원 받을 수

11번가서 가장 많이 팔린 상품은?

고성능 그래픽카드, 지난해 대비 67% 성장

올 한해 11번가 최고 인기상품은 '고성능 그래픽카드(결제거래액 기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수량이 팔린 상품은 '바스크팩(결제수량 기준)'이었고 최다 검색어(검색횟수 기준)는 '나이키'였다.

26일 11번가에 따르면 판매 1위를 차지한 '엔비디아 타이탄 Xp 그래픽카드'는 최상위 하이엔드 모델로 초고해상도, VR, 딥러닝 등 강력한 GPU 성능을 필요로 하는 게이머나 전문가들의 수요가 높다.

특히 올해를 뜨겁게 달군 고사양 게임을 비롯한 인공지능(AI) 열풍 영향에 11번가 내 '그래픽카드' 매출은 지난해 대비(2017년1월1일~11월30일 기준) 67% 성장하며 꾸준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11번가가 6월부터 온오프라인 단독판매하고 있는 해당 제품은 현재 18차에 이르는 예약판매를 실시할 정도로 인기가 폭발적이다.

또 올 한해 '올로(YOLO)' 트렌드 확산으로 '여행', '항공' 영역을 대폭 강화한 결과 항공권 상품들이 상위 20개 내 4개나 포함됐



다. 더불어 설, 추석 등 선물시즌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구매도 높아져 '신세계상품권(3위)', 해피머니 모바일상품권(12위), 롯데백화점 모바일상품권(14위)' 등이 상위에 올랐다.

가장 많은 수량이 판매된 상품(결제수량 기준)은 가성비 높은 팩으로 입소문이 난 '네이처바이 마스크 팩'이었다. 전반적으로 '뷰티', '헬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여러 브랜드의 마스크 팩뿐 아니라 '닭가슴살'(2위), '사과즙'(3위) 등이 고객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다. 또 1인가구 증가로 '편의점 이용권'(15위), '냉동볶음밥'(17위), '칼라면'(20위)' 등 가니를 해결할 수 있는 간편식 관련상품이 상위에 올랐다. /뉴시스

부안 라온 프라이빗, 중기 장기근속자 주택우선 공급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광재)은 중소기업에 장기 재직중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부안 라온 프라이빗 공동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으로 우선 추천한다고 26일 밝혔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택 우선분양제도는 주거 안정을 통한 중소기업 장기재직 유도를 위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장기 근무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이다.

이번 특별공급의 시행시는 주식회사 성안홀딩스로서, 주택 위치는 부안군 부안읍 168번지 일원이고, 우선공급 주택 세대수는 전용면적 75형 1세대, 84A형 3세대, 84B형 2세대, 84C형 1세대 등 총7세대다. (중소기업 장기재직자 한정)

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거나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한다.

특별공급 대상자 추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는 내년 1월 5일 오후6시까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기업환경개선팀으로 구비서류를 챙겨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신청서, 4대보험가입내역서, 주민등록등본 등이며, 이번 특별공급 대상주택 관련 자세한 사항과 신청서는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재직 기간이 오래됐거나 수상경력, 기술/기능인력, 뿌리 산업 종사자, 제조 소기업 재직 근로자, 다자녀 근로자 등에게 가산점을 부과해 고득점 순으로 혜택을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기업환경개선팀(063-210-6433)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김광재 청장은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장기 근속자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소 등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서평로 25(덕진동 17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